

사사기 19-21장의 폭력적 사건들을 하나의 이야기로 읽기

정대준(광신대)

1. 서론

2012년 4월 1일, 대한민국에서 잊기 힘든 끔찍한 사건이 발생했다. 중국에서 온 한 남성이 28세 여성을 성폭행하려고 납치했지만, 그녀는 그것에 완강히 저항했다. 이 사건은 어떤 공포영화보다도 더 무시무시했다. 그녀는 그에게 잔인하게 살해당했다. 게다가 그녀의 몸은 죽음 후에도 존중받지 못한 채 살인자에 의해 280개가 넘는 조각으로 절단되었다. 경찰은 그러한 그의 잔인한 행동에 대한 어떤 이유도 찾지 못했다.¹

1 https://www.chosun.com/site/data/html_dir/2012/04/07/2012040700145.html (2023년 3월 31일 검색). 십여 년 전에 발생한 이 참혹한 사건은 성폭행과 살인 그리고 시신 훼손으로 이어지는 사사기 19장의 레위인의 아내가 겪었던 끔찍한 일과 상당히 유사점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충격을 준다. 두 번 다시 이런 가슴 아픈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회적인 관심과 제도 개선이 필요함은 물론이고, 그녀(들)의 비참한 죽음을 이 사회가 잊지 않고 곱씹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다시 떠올리는 것도 힘들지만 이 사건을 본 글에 기록한다.

구약성경에서도 이와 비슷한 사건을 찾아볼 수 있다. 사사기 19-21장에서 독자는 먼저 레위인의 '아내'가 성폭행을 당한 후 죽임을 당하는 처참한 사건을 접하게 된다.² 게다가 그녀의 몸은 폭도가 아니라 남편인 레위인에 의해 훼손되었다. 앞서 언급한 사건과 마찬가지로 여성이 왜 그렇게 가혹한 대우를 받아야만 했는지에 대해 어떤 합당한 이유를 찾을 수 없다. 그녀는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와서 넉 달 동안 머물렀다. 자신의 남편이 그녀를 데리러 왔고 그녀는 그의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 남편을 따라갔다. 그러나 그녀가 남편을 따른 대가는 너무도 혹독했다. 그녀는 아버지를 제외한 모든 남성에게 학대를 당했다. 또한 그녀는 죽음 이후에도 무시당했다. 그녀의 몸은 열두 조각으로 절단된다.

재클린 랍슬리(Jacqueline E. Lapsley)는 “성경의 여러 이야기에는 여성의 희생에 대한 불안한 묘사가 포함되어 있어 일부 페미니스트 비평가는 성경이 강렬하게 그리고 때로는 바로잡을 수 없을 정도로 가부장적이며 어떤 경우에는 여성 혐오적”이라고 주장한다.³ 이 사건을 포함한 사사기 19-21장의 일련의 사건들은 단순히 랍슬리가 제시한 성경 속 여성 혐오적 태도의 좋은 예인가? 아니면 화자(話者)의 어떤 의도를 독자에게 전달하려는 목적을 가진 것인가?

사사기 19-21장에 등장하는 사건들은 단지 끔찍한 최후를 맞이한 여성들의 여러 사례를 제시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여성으로 대표되는 어느 집단이 내린 결정으로 인하여 어떤 결과가 도래하는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그녀가 자신의 아버지 집에 머물렀다면 그러한 처

2 필자는 이 글에서 '아내'와 '첩'이라는 단어를 같은 의미를 지닌다고 가정하고 사용할 것이다. 실제 의미상 이 두 단어는 큰 차이를 가지지만 사사기 19-20장에서 화자는 같은 의미를 가진 말로 한 여인에 대하여 혼용하여 사용하기 때문이다. 그녀는 신분상 '첩'이고, 가족 관계상 '아내'이며, 성별상 '여성'이고, 어떤 이에게는 '중'으로 여겨진다.

3 Jacqueline E. Lapsley, *Whispering the Word: Hearing Women's Stories in the Old Testament* (Louisville: Westminster John Knox Press, 2005), 35.

참한 대우를 받지 않는 것일 것이다. 그녀는 자신의 안전을 위해 아버지의 보호 속에 머물러야만 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다. 어쩌면 그러한 선택은 그녀의 잘못이 아니었을 수도 있다. 이 이야기는 레위인으로 대표되는 집단이 자신의 안전만을 위해 내린 추악한 행동이 야기하는 결과를 적나라하게 드러낸다.

사사기 19-21장의 첫 번째 사건에 등장하는 레위인의 아내가 당한 충격적인 일 때문에 독자의 시선이 거기에 멈춰버릴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아야 한다. 아프고 두렵지만, 눈을 부릅뜨고 다음 장면으로 나아가야 한다. 이 이야기에서 레위인의 아내에게만 초점을 맞추면 독자는 사사기 19-21장 전체를 아우르는 화자의 의도를 놓칠 수 있다. 그러므로 사사기 19-21장은 하나의 이야기로 여러 사건을 연결하여 분석하여야 그 의미를 명확히 밝힐 수 있다.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필자는 먼저 이 이야기의 문학적 구조에 대해 논의할 것이다. 문학적 구조는 화자의 의도라는 문을 여는 열쇠를 독자에게 효율적으로 전달하기 때문이다. 둘째로 화자가 이 이야기에서 고유명사를 기피하는 이유를 밝힐 것이다. 이야기의 등장인물 모두는 고유한 이름이 없지만 레위인, 첩, 장인 등과 같이 자신의 신분에 따라 소개된다. 여기에서 고유명사의 기피는 독자를 위한 문학적 장치로 기능한다. 화자가 그들을 오직 자신들의 신분 상태로만 묘사하는 것은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 그들은 자기 백성에 대한 야웨의 사랑을 보여주고 이러한 충격적인 사건을 예방하는 방법을 독자에게 가르친다.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 속의 여성 인물인 첩, 야베스 길르앗의 젊은 처녀 사백 명, 그리고 실로의 딸들을 비교할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들의 허물을 해결하려 할수록 점점 여인들의 상황은 더욱더 처참해지기 때문이다. 이 비교를 통하여 야웨의 백성은 자기들 사이에서가 아니라, 야웨와의 효과적인 의사소통이 필요함을 화자가 강조하는 것

으로 보인다.

이 연구는 독자에게 이 이야기가 나타내려고 하는 메시지를 밝힐 뿐만 아니라, 자신의 백성에 대한 야웨의 궁극적인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다. 여성들에 대한 계속되는 폭력 앞에서 느낄 수밖에 없는 현실적인 참담함 속에서, 미미하게 피어오르는 야웨께서 주시는 희망의 씨앗을 독자가 볼 수 있도록 화자는 이 이야기를 세밀하게 구성하고 배치하고 있다.

2. 사사기 19-21장의 문학적 구조

사사기 19-21장은 다음과 같이 반복문구(refrain)로 구성되어 있다. “그 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다(삿 19:1; 21:25).” 이 반복문구는 사사기 19장부터 21장까지를 하나의 문학적 단위로 읽도록 제안하며, 일종의 ‘인클루지오(*inclusio*)’를 만드는 역할을 한다.⁴

타마라 에스케나지(Tamara C. Eskenazi)는 ‘인클루지오’가 일종의 교차배열법(chiasm)이며 내부 요소를 강조하는 역할을 한다고 설명한다.⁵

4 반복문구 때문에 사사기 17-21장까지를 더 큰 인클루지오 구조로 볼 수 있으나, 17-18장에서 언급되는 한 지파의 이야기가 19-21장에서 이스라엘 전체의 이야기로 확대되는 것을 볼 때, 필자는 19-21장을 하나의 문학적 단위로 보고 이 연구를 진행하려고 한다. 이에 대한 논의는 빅터 해밀턴, 「역사서 개론」(강성열 옮김), (과주: CH 북스, 2005), 216. 원제는 Victor P. Hamilton, *Handbook on the Historical Books* (Grand Rapids: Baker, 2001)을 보라. 마크 보다(Mark Boda)와 메리 콘웨이(Mary Conway)도 사사기 17-21장을 17-18장과 19-21장으로 구분하여 설명한다. Mark J. Boda/Mary L. Conway, *Judges* (ECOT 7; Grand Rapids: Zondervan, 2022), 695-880. 또한 임효명, “성폭력 조력자들 연구: 사사기 21장, 사무엘하 13장, 16장 20-23절을 중심으로”, 「구약논단」 83집 (2022년 3월), 192를 보라.

5 Tamara C. Eskenazi, “The Structure of Ezra-Nehemiah and the Integrity of the Book”, *JBL* 107 (1988), 646-647.

또한 반 다이크 파루낙(H. Van Dyke Parunak)은 ‘인클루지오’가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언급한다. 외부는 같은 구조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내부는 외부보다 길다. 또한 ‘인클루지오’는 본문을 나누기도 하고, 합하기도 하며, 반복을 통한 강조의 기능을 갖는다.⁶ 사사기 19-21장은 ‘인클루지오’ 구조로 되어 있어 하나의 문학적 단위로 읽어야 함은 분명하다.⁷ 또한 에스케나지는 ‘인클루지오’의 외부가 내부 내용을 강조하기 위해 괄호와 같은 기능을 한다고 이야기한다.⁸ 이것을 사사기 19-21장에 적용하면, 우리는 사사기의 화자가 이 이야기를 하나의 문학적 단위로 보이게 유도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화자는 ‘레위인의 아내에 대한 강간 및 살인 사건(삿 19장)’과 ‘동족 간의 내전(삿 20-21장)’과 같이 이 이야기가 연관 없는 별개의 사건으로 읽히는 것을 원치 않는다. 왜냐하면 이 이야기는 반복문구(“그 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더라.”)인 괄호 안에 있기 때문이다.⁹

더욱이 두 번째 반복문구에는 다음과 같은 문구가 더해진다. “사람이 자기 보기에 바른대로 행했다(삿 21:25b).” 이 두 번째 반복문구가 사사기의 결론이라면 사사기 19-21장의 여러 사건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옳았으나 하나님께는 가증했음을 시사한다.¹⁰ 또한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았음을 암시하며, 레위인의 아내를 강간하고 살해한 것에 대한 해결책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 않았음을 유추할

6 H. Van Dyke Parunak, “Oral Typesetting: Some Uses of Biblical Structure”, *Biblica* 62 (1981), 158, 160, 168.

7 Trent C. Butler, *Judges* (WBC 8; Nashville: Thomas Nelson, 2009), 468, 471.

8 Eskenazi, “Structure of Ezra-Nehemiah”, 646-648.

9 Richard M. Davidson, *Flame of Yahweh: Sexuality in the Old Testament* (Peabody: Hendrickson, 2007), 162.

10 K. Lawson Younger Jr., *Judges and Ruth* (NIV Application Commentary; Grand Rapids: Zondervan, 2002), 383.

수 있다. 더불어 반복문구는 야웨가 이스라엘의 왕이시며,¹¹ “야웨가 이 끌어 내시는 그런 종류의 충성을 받을 만한 지상 왕이 여전히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¹²

로슨 영거(K. Lawson Younger Jr.)는 사사기 19-21장이 다음과 같은 교차 구조를 갖는 것으로 묘사한다.

- a. 첩에 대한 강간 (19:1-30)
 - b. 베냐민에 대한 해람 (20:1-48)
 - c 문제: 맹세 - 소멸 위기에 처한 베냐민 (21:1-5)
 - b'. 아베스 길르앗에 대한 해람 (21:6-14)
- a'. 실로의 딸들에 대한 강간 (21:15-25)¹³

이 교차 구조에 대해 영거는 “여러 에피소드는 앞서의 에피소드들과의 얽힌 문제와 평행을 통하여 확대되고 실로의 딸들에 대한 강간 (21:15-25)에서 절정을 이룬다”라고 주장한다.¹⁴ 따라서 이러한 문학적 구조는 에피소드가 더 나쁜 상황으로 깊숙하게 이동함에 따라 이야기의 의미를 강력하게 만든다. 또한 이 문학적 단위의 중심(c)은 첫 번째 사건(레위인의 첩의 강간 사건)에 대한 그들의 해결 방식이 ‘모두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기 때문(반복문구)’에 더 끔찍한 결과를 낳는다는 것을 입증한다.

이 이야기를 두 부분으로 나누어 연구한 데이빗 돌시(David A. Dorsey)에 따르면, 이 문학적 단위는 두 개의 교차 구조를 가진다.

11 Robert G. Boling, *Judges* (AB 6A; New York: Doubleday, 1975), 273.

12 Boling, *Judges*, 294.

13 Younger, *Judges and Ruth*, 347. 또한 Barry G. Webb, *The Book of the Judges: An Integrated Reading* (JSOTSup 46; Sheffield: JSOT Press, 1987), 196을 보라.

14 Younger, *Judges and Ruth*, 347.

레위인의 첩에 대한 만행(삿 19)

- a 레위인의 첩이 에브라임의 집을 떠나 아버지의 집으로 향함(19:1-2)
- b 레위인의 첩을 대상으로 한 평화로운 협상(19:3-4)
- c 베들레헴에서의 환대(19:5-9)
- d. **전환점**: 레위인이 집으로 향함(19:10-13)
- c' 기브아에서의 만행(19:14-21)
- b' 레위인의 첩을 대상으로 한 잔인한 협상(19:22-26)
- a' 레위인의 첩이 시신이 되어 에브라임의 집으로 향함(19:27-30)

베냐민 지파와의 전쟁(삿 20-21)

- a 첫 번째 이스라엘 총회(20:1-11)
- b 두 번째 총회: 전쟁 직전 회집(20:12-17)
- c 이스라엘이 베냐민에 패함(20:18-25)
- d **전환점**: 여호와께서 승리를 약속함(20:26-28)
- c' 이스라엘이 베냐민에 승리함(20:29-49)
- b' 마지막에서 두 번째 총회: 전쟁 직후 회집(21:1-15)
- a' 마지막 이스라엘 총회(21:16-25)¹⁵

본문이 두 개의 교차 구조로 되어 있다면, 이 구조 안의 '전환점(turning point)' 사이의 대조에 초점을 맞추어 그 중요성을 도출해 낼 수 있다. 각 교차 구조는 전혀 다른 내용을 가지고 있지만, 서로 관련되어 있다. 본질적으로 독자는 두 전환점에서 희망을 찾을 수 있다. 첫 번째 전환점은 레위인이 아내와 더불어 행복한 새 삶을 꿈꾸던 소망을 두드러지게 한다. 그는 자신의 아내와 함께 자기 집으로 여행을 시작한다. 레위인의 아내가 남편을 따랐기 때문에 그의 제안에 동의한 것은 확실

15 데이빗 돌시, 「구약의 문학적 구조: 창세기-말라기 주석」(류근상 옮김), (고양: 크리스찬출판사, 2003), 175, 177. 원제는 David A. Dorsey, *The Literary Structure of the Old Testament: A Commentary on Genesis - Malachi* (Grand Rapids: Baker, 1999).

하다. 불행하게도 그와 그녀가 꿈꿨던 미래의 행복은 산산이 조각난다. 이 상황을 통하여 화자는 레위인의 계획이 매우 조급하고 즉흥적이라는 것을 독자에게 보여준다. 야웨와 소통함 없는 사람의 계획은 불완전하다는 것을 이들의 모습을 통해 화자는 드러내며, 이는 레위인과 그의 아내가 그들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하고 있었다는 것을 암시한다.

대조적으로, 두 번째 전환점은 여호와께서 베냐민에 대한 이스라엘 자손의 승리를 약속하신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이 세 번이나 내전에 관하여 질문했지만, 야웨는 오직 마지막 질문에서만 베냐민에 대한 승리를 공식화하신다.

표 1. 이스라엘 백성의 질문과 야웨의 응답

	질문	응답
18절	누가 먼저 올라갈까요?	유다이다.
23절	우리가 다시 우리 형제를 치러 갈까요?	그렇다.
28절	우리가 다시 우리 형제를 치러 갈까요, 아니면 그만둘까요?	다시 가라. 내가 네 손에 그들을 건넬 것이다. ¹⁶

이와는 대조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은 그들이 보기에 옳은 대로 야웨의 정확한 응답, 즉 그들이 승리할 것이라는 확답을 듣기도 전에 베냐민을 상대로 전쟁을 준비한다. 그들은 야웨의 단순한 응답이 베냐민 지파에 대한 승리를 의미한다고 자기들의 소견에 옳은 대로 생각한다. 두 번의 패배 후에 그들은 야웨와의 관계를 회복하려고 한다(삿 20:26; 울머

16 Webb, *The Book of the Judges: An Integrated Reading*, 193.

금식하며 번제를 드립).¹⁷ 영거도 “야웨께서 의도적으로 이스라엘이 두 번의 전투에서 패배하도록 허용하신다. … 겸손한 이스라엘이 야웨께 호소할 때만 이스라엘과 야웨의 목표는 잠시나마 일치한다”라고 주장한다.¹⁸ 화자는 두 번째 전환점에서 야웨와 그분이 택한 민족 사이의 이상적인 관계를 묘사한다. 안타깝게도 베냐민 지파를 이긴 후 이스라엘은 두 번째 전환점에서 그랬던 것과는 달리 야웨의 뜻을 묻지 않는다.

첫 번째 전환점에서 레위인과 그의 아내가 그들의 계획대로 여행을 시작한다는 점에서 화자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혀 희망이 없음을 효과적으로 지적한다. 그러나 두 번째 전환점에서는 앞선 두 번의 질문과 달리 마지막에 이스라엘이 야웨의 계획을 정확하게 묻기 때문에 그분의 뜻 안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의 실례를 화자가 밝히는 것으로 보인다.

표 2. 사사기 19-21장의 두 전환점에 대한 비교

	첫 번째 전환점	두 번째 전환점
누구의	사람의 계획	야웨의 약속
결과	많은 사람의 죽음	보장된 승리

결론적으로 두 전환점은 야웨 없는 인간의 계획은 부정적으로 실현되지만, 야웨의 약속은 긍정적으로 성취된다는 것을 두드러지게 나타낸다. 사사기 19-21장에서 비록 야웨는 그분의 백성을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하셨지만, 독자는 두 번째 전환점에서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17 Gregory T. K. Wong, *Compositional Strategy of the Book of Judges: An Inductive, Rhetorical Study* (VTSup 111; Leiden: Brill, 2006), 68.

18 Younger, *Judges and Ruth*, 374.

희미한 희망을 발견할 수 있다.¹⁹

그림 1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사사기 19-21장은 잘 짜인 문학적 구조를 가지고 있다. 두 개의 교차 구조는 이 문학적 단위에서 서로 강하게 연결되어 있다. 괄호, 즉 반복문구(“그 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더라.”)는 사사기 19-21장을 인클루시오 구조로 보게 한다. 이 구조를 사용하여 화자는 두 사건이 관련되어 있음을 독자에게 효과적으로 드러낸다. 이 문학적 단위에서 두드러진 부분은 서로 대조되는 두 전환점이다. 하나의 전환점은 부정적인 결과로 이어지는 사람들의 계획이다. 다른 하나는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오는 야웨의 약속이다.

지금까지 살펴본 사사기 19-21장의 문학적 구조를 통하여 화자는 독자에게 이 본문을 사사시대에 고통받던 여성들에 관한 세 가지 사건으로 구분하여 읽기보다는 긴밀하게 연결된 하나의 이야기로 보도록 인도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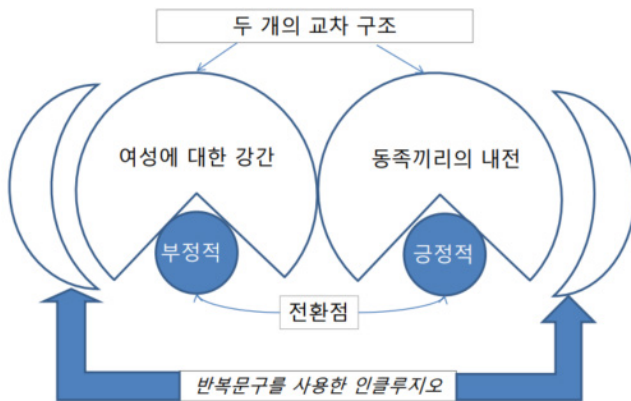


그림 1. 사사기 19-21장의 문학적 구조

19 Wong, *Compositional Strategy of the Book of Judges*, 199.

3. 레위인의 아내/첩 사건의 등장인물에 대한 상징적 의미

사사기 19-21장의 첫 번째 사건(여성에 대한 강간)에는 레위인, 그의 아내/첩, 장인 등 여러 인물이 등장한다. 그러나 화자는 이 사건을 들려주면서 그들의 이름을 전혀 언급하지 않는다. 무엇 때문에 화자는 이런 방식으로 이 사건을 묘사하는가? 독자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화자가 고유명사의 언급을 의도적으로 회피했을 가능성이 있다.²⁰ 필자는 이 사건의 이름 없는 등장인물들이 당시 이스라엘 사회의 특정 집단을 상징하며,²¹ 본질적인 면에서 이와 유사한 사건이 그 당시 빈번하게 발생했음을 화자가 이런 방식으로 표현하고 있다고 제안한다.

사사기 19장의 두 주인공인 레위인과 그의 아내/첩은 서로 극명한 대조를 이룬다. 그들의 성별과 사회적 지위는 분명히 다르다. 하이디 스펙(Heidi M. Szpek)은 “레위인은 이스라엘 사회에서 명예로운 위치를 차지하지만, 첩의 위치는 모호하다”면서,²² 성경에 나오는 첩은 존경받는 사람도 있지만 경멸당하거나 성적인 대상으로 이용되는 사람도 있다고 주장한다.²³ 일반적으로 ‘첩’이라는 단어는 비정상적인 부부 관계와 관련이 있다. 이는 “첩이 아내와 같다고 말할 수 있지만, 꼭 그렇지는 않음” 때문이다.²⁴ 이 특정 첩과 관련하여 앨리스 오그덴 벨리스(Alice Ogden Bellis)는 “그녀는 성적인 목적으로 사용되는 노예를 의미하는 ‘첩’

20 Michael John Smith, “The Failure of the Family as a Theme in the Book of Judges” (PhD diss., Dallas Theological Seminary, 2004), 219; 박유미, “여성 등장인물을 중심으로 한 사사기 19-21장과 룯기 비교연구”, 『구약논집』 18집 (2020년 12월), 83-84.

21 임효명, “성폭력 조력자들 연구”, 190.

22 Heidi M. Szpek, “The Levite’s Concubine: The Story That Never Was”, *Women in Judaism* 5 (2007), 2.

23 Szpek, “The Levite’s Concubine”, 9.

24 Pamela Tamarkin Reis, “The Levite’s Concubine: New Light on a Dark Story”, *SJOT* 20 (2006), 126.

으로 일반적으로 번역되는 히브리어 단어인 שָׂדֵד(펠레게쉬)라고 불렀다”라고 설명한다.²⁵ 이 첫 번째 사건에서 히브리어 שָׂדֵד는 11번 사용되는데,²⁶ 어원상으로 *plgs*는 “결혼 가능한(marriageable)” 상태를 의미한다.²⁷ 수잔 애커먼(Susan Ackerman)은 “성경에서 ‘첩’이라는 용어는 남자의 하렘(harem)에 속하지만, 실제 아내가 아닌 여성을 의미할 수도 있고, 남자와 부처(secondary wife)로서 결혼한 여성을 의미할 수도 있다”라고 주장한다.²⁸

그러나 차임 라빈(Chaim Rabin)에 따르면 שָׂדֵד는 ‘첩’과 ‘어린 소녀’라는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다.²⁹ 라빈은 더 나아가 שָׂדֵד의 어근 *legb*-가 “결혼한 아내”를 의미한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그는 히브리어 שָׂדֵד가 “정상적인” 아내를 의미할 수 있다고 제안한다.³⁰ 더불어 빅터 해밀턴(Victor Hamilton)은 히브리 성경에서 아내를 의미하는 אִשָּׁה와 첩을 의미하는 שָׂדֵד가 함께 사용되는 경우가 없다고 설명하는데,³¹ 예외적으로 이 사건에서는 אִשָּׁה와 שָׂדֵד가 동시에 등장한다. 따라서 그녀는 첩으로 칭해지지만 실제로는 레위인의 아내와 같은 역할을 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레위인과 그 여인과의 관계에 대해 켄 스톤(Ken Stone)은 다음과 같

25 Alice Ogden Bellis, *Helpmates, Harlots, and Heroes: Women's Stories in the Hebrew Bible* (2nd ed; Louisville: Westminster John Knox Press, 2007), 118.

26 사 19:1, 2, 9, 10, 24, 25, 27, 29; 20:4, 5, 6.

27 K. Engelken, “שָׂדֵד”, *TDOT* 11, 549.

28 Susan Ackerman, *Warrior, Dancer, Seductress, Queen: Women in Judges and Biblical Israel* (ABRL; New York: Doubleday, 1998), 236.

29 Chaim Rabin, “The Origin of the Hebrew Word *pileges*”, *JJS* 25 (1974), 355.

30 Rabin, “The Origin of the Hebrew Word *pileges*”, 358; 사라 슐츠(Sarah Schulz)는 히브리어 שָׂדֵד를 칠십인경의 해당 단어 *παλλακική*의 원래 의미를 바탕으로 “사랑하는 여인”이라고 해석한다. Sarah Schulz, *Die Anhänge zum Richterbuch: Eine Kompositionsgeschichtliche Untersuchung von Ri 17-21* (BZAW 477; Berlin: De Gruyter, 2016), 16-17.

31 Victor P. Hamilton, “שָׂדֵד”, *NIDOTTE* 3, 618.

이 설명한다.

히브리 성경의 어떤 남성은 아내와 첩을 모두 가지지만, 사사기 19 장에는 아내 혹은 다른 첩들이 언급되지 않는다. 레위인은 그 여성의 '남편'(19:3; 20:4)으로, 그리고 레위인의 '장인'으로 언급된(19:4, 7, 9) 그 여성의 아버지의 '사위'(19:5)로 차례차례 언급된다.³²

수잔 니디치(Susan Niditch)는 “문제가 있는 부부(dysfunctional couple) 사이의 관계는 그들의 친족 중 소수에 대한 개별 이스라엘 사람의 극악 무도한 공격으로 이어진다”라고 이야기한다.³³ 이 이야기를 비유적으로 읽으면 레위인이 본처를 두지 않은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첩은 아웨와 그분의 백성 사이의 깨어진 관계를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네하마 아쉬 케나지(Nehama Aschkenasy)는 “‘첩’이라는 용어는 합법적인 결혼 예식인 *kiddushin*이나, 경제적으로 그녀를 보호하는 문서인 *ketubah* 없이 남편의 집에 들어가는 아내를 의미한다”라고 말한다.³⁴ 따라서 레위인과 그의 아내는 결혼할 때 정상적인 부부라 칭하기 어려운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결과적으로 그녀는 레위인과 결혼을 했기 때문에 그의 아내라고 할 수 있지만,³⁵ 첩이라고 불릴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있었던 것으로 여겨진다.

더욱이 미케 발(Mieke Bal)은 히브리어 פְּלִיטָה가 “부계 거주 아내

32 Ken Stone, “Judges 19–20: Concubine (Secondary Wife) of a Levite”, Carol Meyers/Toni Craven/Ross S. Kraemer(eds.), *Women in Scripture: A Dictionary of Named and Unnamed Women in the Hebrew Bible, the Apocrypha/Deuterocanonical Books, and the New Testament* (Grand Rapids: Eerdmans, 2000), 249.

33 Susan Niditch, *Judges* (OTL; Louisville: Westminster John Knox Press, 2008), 190.

34 Nehama Aschkenasy, *Woman at the Window: Biblical Tales of Oppression and Escape* (Detroit: Wayne State University Press, 1998), 165.

35 히브리 성경에서 레위인을 ‘그녀의 남편’(삿 19:3) 또는 ‘그 여성(아내)의 남편’(삿 20:4)이라고 언급하는 것에 유의하라.

(patrilocal wife), 즉 자기 아버지의 집에 사는 아내, 딸로 남아 있는 아내와 같은 자를 의미한다”라고 확신한다.³⁶ 그렇다면 그녀가 자기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는 것은 올바른 행동이다(삿 19:2). 아버지의 집은 그녀에게 바른 장소, 즉 그녀가 있어야 할 곳이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독자는 히브리어 동사 **גָּאַף** 때문에 그녀의 행동이 잘못 되었다고 여긴다(삿 19:2).³⁷ 이 동사는 두 가지 의미를 지니는데 대부분의 번역본은 이 동사를 ‘간음하다’로 이해하는 경향이 있다. 이 동사에 이런 의미를 적용하면 사건의 원인이 그녀에게 있게 되며, 레위인은 정조를 지키지 않은 아내마저도 용서하는 선한 자로 보이게 된다. 반면에 이 동사를 HALOT에서 제시하는 또 다른 의미에 따라 ‘혐오감을 느끼다’로³⁸ 번역하면 사건의 출발점이 레위인에게 있게 된다.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레위인의 아내는 자신의 남편에게 혐오감을 느끼고 자기 아버지의 집으로 가버린다.³⁹ 셰릴 엑섬(J. Cheryl Exum)의 설명은 이 동사의 두 번째 의미를 뒷받침한다.

2절의 히브리 성경 본문에 따르면, 레위인의 아내는 ‘그에게 음행을 저질렀다.’ 본문에는 그 여성의 성적 비행에 대한 증거가 없기 때문에, 모든 번역은 그녀가 ‘그에게 화를 냈다’라고 번역한 버전을 따라야 한다. 또한 이러한 읽기는 2-3절에 나오는 내용에 비추어 볼 때

36 Mieke Bal, *Death and Dissymmetry: The Politics of Coherence in the Book of Judges*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88), 89.

37 이에 관한 최근 연구는 William Krisel, “Was the Levite’s Concubine Unfaithful or Angry?: A Proposed Solution to the Text Critical Problem in Judges 19:2”, *OTE* 33 (2020), 473-489를 보라.

38 HALOT, 275.

39 베리 웨브(Barry G. Webb)은 동사 **גָּאַף**를 간음하다로 해석하기를 제안하지만, 그것은 문자적인 의미라기보다는 은유적인 의미라고 설명하면서 그녀가 어떤 참을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아버지의 집으로 도망친 것 같다고 이 부분을 해석한다. Barry G. Webb, *The Book of Judges* (NICOT; Grand Rapids: Eerdmans, 2012), 456.

의미가 있는데, 이는 그녀가 창녀가 되어 아버지 집에 갈 것 같지 않기 때문이다. 그녀가 창녀가 되었다면 레위인이 그녀를 뒤쫓아 데려왔을 가능성은 더욱 희박하다.⁴⁰

티크바 프라이머-켄스키(Tikva Frymer-Kensky)는 동사 **קָנַן**가 “정절의 결핍, 아내와 남편 사이 또는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의 계약 위반”을 묘사한다고 이야기한다.⁴¹ 더불어 프라이머-켄스키는 레위인이 사사기 19:3에서 하나님을 상징하는 것 같다고 설명하는데, 레위인은 하나님이 그분의 백성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아내를 데려오기 위해 그녀에게 다정하게 말했기 때문이다.⁴² 그러나 여인에 대한 레위인의 결심은 위협에 직면했을 때 쉽게 변한다. 그녀의 마음에 호소할 계획이었지만, 그는 자신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주저 없이 그녀를 위험한 곳에 던진다.⁴³ 자기 아내에 대한 그의 태도는 불과 며칠 만에 바뀐다. 따라서

40 J. Cheryl Exum, “Feminist Criticism: Whose Interests Are Being Served?” Gale A. Yee(ed.), *Judges and Method: New Approaches in Biblical Studies* (2nd ed; Minneapolis: Fortress Press, 2007), 83; 또한 Robert Boling, *Judges* (AB 6A; New York: Doubleday, 1975), 273-274를 보라.

41 Tikva Frymer-Kensky, *Reading the Women of the Bible: A New Interpretation of Their Stories* (New York: Schocken Books, 2002), 120. 또한 Klaas Spronk, *Judges* (HCOT; Leuven: Peeters, 2019), 506을 보라.

42 Frymer-Kensky, *Reading the Women of the Bible*, 120.

43 누가 그녀를 밖으로 던진 것인지에 대한 의견은 레위인과 집주인으로 나뉜다. 이 사건을 이야기하는 본문 가운데 레위인을 의미할 것으로 보이는 ‘그 사람(שׂוֹנֵן)’이라는 단어가 15회 등장하는데 ‘그 사람’이 집주인인 노인을 의미할 경우는 שׂוֹנֵן을 수식하는 다른 단어가 존재한다(19:17, 20, 22, 23, 26). 따라서 שׂוֹנֵן만 홀로 사용된 10회의 경우(19:6, 7, 10, 17, 22, 23, 25, 28; 20:4)는 모두 레위인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사 19:25에서 “그 사람(שׂוֹנֵן)이 자기 아내를 잡았다”라고 언급할 때도 שׂוֹנֵן에 수식어가 없으므로 레위인을 의미한다. 보다(Boda)와 콘웨이(Conway)는 만약 집주인이 그녀를 밖으로 내몰았다면, 레위인이 그 행동에 대해 막거나 항의했을 것이기에 שׂוֹנֵן은 분명히 레위인을 지칭한다고 주장한다. Boda and Conway, *Judges*, 793. 임효명(“성폭력 조력자들 연구”, 196)은 레위인의 아내를 누가 폭도들에게 내던졌는지 모호하게 만드는 기법을 통해 화자가 레위인과 집주인인 노인 모두를 비난하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그녀의 남편인 레위인이 자기 아내를 폭도에게 가차 없이 끌어냈다는 진술은 독자에게 더 큰 충격을 준다는 점에서 사 19:25은 이 레위인을 가장 효과적으로 비난하고 있다.

이 사건에서 레위인은 하나님을 상징하지 않는다.

대신 그녀의 아버지는 자신의 딸과 사위를 변함없이 대우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상징하는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아버지 집에 그녀가 계속 머물렀다면 이런 끔찍한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지도 모른다.⁴⁴ 아버지의 집은 그녀에게 안전하고 적절한 장소이다. 마치 이는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는 것과 같다. 그녀는 레위인의 ‘부계 거주 아내’였기 때문에 아버지의 집에 거주하는 것이 합당하다.⁴⁵ 자신의 딸 때문에 상상 이상의 호의를 베푸는 아버지의 모습에서도⁴⁶ 그가 하나님을 상징한다고 여길 수 있다. 더불어 레위인에게 그녀는 첩이지만, 아버지에게 여전히 그녀는 ‘חַנָּאִיתָא(한나아라/여자아이)’였다는 점에서 그녀는 야웨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상징한다.⁴⁷

장인의 레위인을 향한 반복적인 설득에 비해 아버지와 딸의 대화 부재는 묘한 긴장감을 불러일으킨다. 그러나 레위인이 그녀를 찾아 오기까지 4개월이 시간이 지체되었음을 고려할 때, 그 시간 동안 아버지와 딸 사이에 충분한 대화가 있었을 것임을 장인의 사위에 대한 예상을 능가하는 환대와 설득을 통해 짐작할 수 있다. 그는 자신의 딸에게서 무슨 이야기를 들은 것인가? 왜 그토록 딸을 사위의 집으로 가지 못하도록 시간을 지연시키고 있는 것인가? 더불어 4개월 만에 찾아온 사위와 딸을 격리해 놓은 아버지의 마음은 무엇을 보여주고 있는 것인가? 반복

44 Aschkenasy, *Woman at the Window*, 64.

45 Bal, *Death and Dissymmetry*, 89.

46 Younger, *Judges and Ruth*, 353.

47 화자는 그녀와 아버지의 관계를 ‘그 여자아이의 아버지(חֹבֵב הַיְתִיבָּא)’라는 표현으로 친근함을 드러낸다. 그러나 아내와 남편의 관계는 첩과 아내라는 말을 번갈아 사용하며 문제가 있음을 드러낸다. 심지어 그들을 환대한 기브아의 노인은 그녀를 ‘여중(חַנָּאִיתָא)’으로 인식하기도 한다(삿 19:19). 남편은 심지어 그녀가 죽음의 문턱을 넘나드는 순간 ‘그녀의 주인(חֹבֵב הַיְתִיבָּא)’으로 묘사된다(삿 19:26-27). 아내와 남편의 관계는 주인과 종의 관계로 점점 바뀌며 그녀는 그와 한 몸이 아니라, 주인을 위해 버려져도 되는 무언가가 되고 만다.

되는 장인의 설득 장면에서 독자는 레위인이 장인의 집에 방문한 목적을 잊어버린 것은 아닌지 의구심을 갖게 한다.⁴⁸ 어쩌면 그녀의 아버지는 자신의 사위에게 딸에 대한 생각을 잊게 하려고 했을지도 모른다. 장인의 환대 장면에서 그녀의 모습은 의도적으로 배제된 것처럼 보이며, 위기의 순간에 집 안에 머무르게 하는 것조차 허용하지 않았던 남편과는 달리, 그녀의 아버지는 그녀를 자신의 집 가운데에서 가장 안전한 장소에 숨겨 놓은 것처럼 보이기까지 한다.

그 여인의 아버지가 하나님을 상징한다면, 레위인은 누구를 상징하는가? 자기 아내에 대한 그의 변덕스러운 성격을 고려한다면, 그는 불량한 성품을 가졌으며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를 상징하는 것으로 보인다. 레위인은 하나님의 소유로서(민 3:12),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성막을 위하여 자신에게 맡겨진 임무를 경건하고 성실하게 수행해야만 한다(민 3-4장). 그러나 이 레위인은 자신의 아내에 대한 태도에서 알 수 있듯이 가나안 풍습을 따른다.⁴⁹ 그렇기에 장인은 그와 자신의 딸을 격리시켜야만 했다. 레위인의 아내는 죽는 순간 자신을 위험에 내몰고 방치한 남편에게 돌아가려고 한다. 하지만 그곳은 안전한 장소가 아니었다. 슬프게도 그녀는 그 절박한 순간 자신의 안전을 위해 갈 수 있는 곳이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았다. 떠나온 아버지의 집이 유일한 대안이지만, 지금 그녀는 자신을 가차 없이 밖으로 내던졌던 자가 있는 곳으로 가려고 할 수밖에 없었다.⁵⁰

그녀가 “이미 죽은 건지, 아니면 그녀의 몸을 토막 낼 때 그가 그녀

48 레위인은 뭔가를 자주 잊어버리는 사람이다. 그는 자기 아내를 4개월 동안 잊어버리고 살며, 아내를 만나러 갔다가 장인만을 만난다. 그녀를 보호해야 할 위급한 순간에 그는 자신이 남편이라는 사실도 잊고 그녀를 앞장서서 폭력의 한복판으로 이끈다.

49 Smith, “The Failure of the Family as a Theme in the Book of Judges”, 219.

50 Lapsley, *Whispering the Word*, 46.

를 죽인 건지” 이 부분을 해석하는 것은 쉽지 않다(삿 19:29).⁵¹ 하지만 그 당시 그녀가 죽었는지의 여부는 레위인에게 중요하지 않은 것 같다. 그녀의 죽음에 대해 “분명히 그는 어떤 애도도 하지 않으며, 그녀를 위한 장례식조차 시행하지 않는다.”⁵² 레위인은 자기 아내에 대한 베냐민 잡배들의 폭력에 대해서가 아니라, 자신에 대한 그들의 처우에 대해서 복수할 계획을 세운다. 이것이 그녀를 위해, 그리고 그녀가 당한 폭력에 대처하는 적절한 방식인가? 전혀 그렇지 않다.⁵³ 뼈 중의 뼈요 살 중의 살인(창 2:23) 자기 아내의 몸을 그는 토막낸다. 레위인이 부부 관계를 무시하듯이 악한 종교 지도자도 하나님 백성의 어려움을 외면하며 자신들은 물론 백성과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하는 데 관심이 없고 도리어 파탄내기도 한다.⁵⁴

화자가 이 사건을 묘사하면서 고유명사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점은 주목할 만한 것이다. 이는 그들의 행동이 “당시 이스라엘에서 전형적인 행동이었기” 때문이다.⁵⁵ 일반적으로 아내는 아버지가 아닌 남편과 함께 산다. 그러나 화자는 **אִשְׁתּוֹ**라는 단어를 사용하여 이 이야기에서 두 사람 사이의 정상적인 관계가 어떤 것인지 독자에게 전달한다. 이 사건에서 정상적인 관계는 레위인(악한 종교 지도자들)과 그의 첩(이스라엘) 사

51 Smith, “The Failure of the Family as a Theme in the Book of Judges”, 219; Frymer-Kensky, *Reading the Women of the Bible*, 127. 이영미는 “만일 그녀가 죽었다면 레위사람은 시체를 만지는 부정을 저지른 셈이 된다”라고 주장하면서, 그의 아내가 여전히 살아있었을 것이라 가정하는데 의미 있는 설명이지만, 화자는 이미 레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은 그가 그녀의 생과 사에 전혀 관심 없는 무관심으로 보이도록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영미, “전쟁과 성폭력 피해여성들의 추방 경험과 해방을 위한 기억들: 일본군 ‘위안부’ 피해여성과 사사기 19-21장의 성폭력 피해여성을 사례로”, 『캐논엔컬처』 18호 (2015), 112.

52 Phyllis Trible, *Texts of Terror: Literary-Feminist Readings of Biblical Narrative* (Philadelphia: Fortress Press, 1984), 80.

53 Frymer-Kensky, *Reading the Women of the Bible*, 127.

54 J. Andrew Dearman, “The Family in the Old Testament”, *Int* 52 (1998), 118.

55 Smith, “The Failure of the Family as a Theme in the Book of Judges”, 220.

이가 아니라, 아버지(하나님)와 딸(이스라엘) 사이이다. 그 여인은 레위인의 재산으로서 그에게 첩일 뿐이었지만, 아버지에게는 소중한 딸이었다. 자신의 딸 때문에 장인인 아버지는 사위인 악한 레위인 마저 극진하게 대우한다. 이런 방식으로 **פְּלִיטָה**는 이 사건을 해석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4. 사사기 19-21장에 나오는 세 부류의 여인들

랍슬리는 사사기 19-21장에서 “처음부터 전체 이야기를 특징짓는 폭력이 더 심한 폭력을 낳는 패턴은 이야기가 음울한 결론에 도달함에 따라 줄어들지 않고 계속될 것이다”라고 이 이야기의 전개 방식을 설명한다.⁵⁶ 이 이야기에서 레위인의 아내, 아베스 길르앗의 젊은 처녀 사백명, 실로의 딸들은 물건처럼 취급받는다.⁵⁷ 아내감을 찾는다는 목표는 이스라엘이 그것을 달성하기 위해 무엇이든 할 것임을 암시한다.

레위인의 안전을 위해 그의 아내는 무뢰한들에게 던져져 강간을 당하고, 베냐민 사람들에게 대한 끔찍한 복수를 위해 그녀의 몸은 남편에 의해 토막난다. 이후 베냐민 사람들에게 아내를 만들어 주기 위해 아베스 길르앗에 거하는 모든 사람이 이스라엘에게 죽임을 당한다. 게다가 실로의 딸들은 축제 중에 베냐민 사람에게 납치당한다. 이 이야기에 등장하는 세 부류의 여인들은 유사한 대우를 다른 이들에게 당하며, 각 사건은 진행될수록 점점 더 처참해지면서 계단식 평행을 이룬다.

56 Lapsley, *Whispering the Word*, 60.

57 Tribble, *Texts of Terror*, 66.

표 3. 사사기 19-21장의 여인들과 그들이 돌아간 혹은 돌아갈 곳

여인	돌아간 혹은 돌아갈 곳
레위인의 아내	그녀는 아버지에게로 돌아갔다.
야베스 길르앗의 처녀들	가족이 모두 죽임을 당했기 때문에 그들은 갈 곳이 없었지만, 예배하기 위해 아웨게 갈 수 있다.
실로의 딸들	그들은 갈 곳이 없었다. 또한 그들이 여호와께 예배할 때 납치되었기 때문에 아웨게로도 갈 수 없었다.

레위인의 아내가 노인의 집 출입구에서 죽었을 때, 그녀의 손은⁵⁸ **קַדְדָּ**(사프/문지방; 사 19:27)에 있었다. 화자는 그녀의 삶의 마지막 모습을 자세하게 설명한다. 랍슬리는 “여인의 손의 배치를 묘사하는 이러한 세부적 표현은 줌 렌즈와 같은 기능을 한다”라고 확신한다.⁵⁹ 그녀의 손의 위치로 미루어 볼 때 그녀는 생의 마지막 시간에 남편에게로 돌아가고자 하는 열망이 강했음이 분명하다. 렉스 메이슨(Rex Mason)은 **קַדְדָּ**에 대하여 “때때로 세속적인 의미로 사용된다. … 그러나 그것은 훨씬 더 자주 성전의 문지방이나 제의 목적을 위한 신성한 성전 그릇에 사용된다”라고 설명한다.⁶⁰ 따라서 화자는 **קַדְדָּ**라는 단어를 사용하여 두 가지 의미

58 히브리 성경에서 손은 일반적으로 힘을 상징하는데 그녀는 자신의 마지막 힘을 문지방에 두는 데 소모한 것으로 보인다. Julie Faith Farker, “Re-memembering the Dismembered: Piecing Together Meaning from Stories of Women and Body Parts in Ancient Near Eastern Literature”, *BI* 23 (2015), 176-177.

59 Lapsley, *Whispering the Word*, 48.

60 Rex Mason, “The Use of Earlier Biblical Material in Zechariah 9-14: A Study in Inner Biblical Exegesis”, Mark J. Boda/Michael H. Floyd(eds.), *Bringing Out the Treasure: Inner Biblical Allusion in Zechariah 9-14* (JSOTSup 370; Sheffield: Sheffield Academic Press, 2003), 145. 히브리 성경에서 **קַדְדָּ**는 32회 사용되었는데 그중 분명하게 성전 문지방을 의미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왕하 12:10; 22:4; 23:4; 25:18; 대상 9:19, 22; 대하 3:7; 23:4; 34:9; 사 6:4; 렘 35:4; 52:24. 성전 그릇을 의미하는 경우는 왕상 7:50에 등장한다.

를 독자에게 동시에 전달한다. 이 단어는 이 사건에서 남편에게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께 돌아가고자 하는 그녀의 마지막 소원을 묘사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 사건을 해석하기 위한 다른 중요한 단어는 מַלְאָכָה(텔레트/문: 샷 19:27)이다. 엘리스 바흐(Alice Bach)에 따르면 “문은 안전과 위협, 명예와 수치, 삶과 죽음 사이의 표식이다.”⁶¹ 사사기 19:27에서 מַלְאָכָה는 복수형이다. 레위인이 아침에 일어났을 때 그는 집 ‘문들’을 연다. 레위인의 아내는 자신의 위급한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을지도 모르는 집으로 들어가는 다른 문(들)을 찾았을지 모르지만, 밤새 닫힌 모든 문은 그녀를 안전한 곳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막는다. 집 안에 머문 자들이 자신들의 안전을 위해 그녀가 집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모든 문을 닫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복수형 מַלְאָכָה는 집 안에 있는 그들의 행동이 잘못되었음을 강조한다.

같은 방식으로 두 번째 사건을 정리해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백 명의 처녀를 얻기 위해 야베스 길르앗의 모든 주민을 죽인다. 베냐민 사람들이 아내를 구하기는 했지만, 온 가족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죽임을 당한 사백 명의 처녀는 심각한 고통을 겪었을 것이다. 야베스 길르앗의 처녀 사백 명의 상황은 비록 살아있기는 하지만 레위인의 아내의 처지보다 훨씬 더 처참하다. 레위인의 아내와 달리 그들은 자신의 모든 가족을 잃는다.

독자는 이제 이 문학적 단위의 마지막 사건을 만난다. 강간이나 살인은 없는 것처럼 보이고, 이 문학적 단위의 마지막 사건에서는 유괴만 존재한다. 이것은 이전 두 사건보다 훨씬 덜 심각한 문제로 독자에게 읽힐 수 있다. 그러나 마지막 사건은 실로의 딸들이 자기 하나님 야웨

61 Alice Bach, “Rereading the Body Politic: Women and Violence in Judges 21”, Alice Bach(ed.), *Women in the Hebrew Bible* (New York: Routledge, 1999), 397.

와 단절되도록 만들기 때문에 실제로 다른 사건보다 가장 심각한 폭력을 포함하고 있다.⁶² 실로의 딸들이 야웨를 위한 축제 기간(תִּשְׁבֵּעַ; 사 21:19)에 납치된다. 야웨를 위한 축제는 히브리 성경에 나오는 “여인의 종교 활동”에 대한 좋은 예이다.⁶³ 사사기 21:19의 축제에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웨께 드리는 제사가 포함되어 있다.⁶⁴ 베냐민 사람들은 실로의 딸들이 야웨께 경배하고 있을 때 그들을 납치한다.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모두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한다. 그들이 여성들과 야웨와의 관계를 끊은 것도 그들이 보기에는 옳았을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은 야웨와 동떨어져 있는 사람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예배자들을 야웨의 편에서 끌어낸다. 마치 레위인이 자기 아내를 밖으로 던지고, 이스라엘이 야베스 길르앗의 주민을 모두 죽여 버린 것처럼, 그들은 자기 눈에 보기 좋은 대로 계속 행동한다.

사사기 19-21장의 내러티브 패턴을 통해 화자가 독자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이같이 분명하다면 신명기 역사의 다른 부분에서도 이러한 내러티브 패턴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한 가지 예가 다윗 내러티브에서 분명히 드러난다. 프라이머-켄스키는 “다윗이 다른 남자의 아내를 ‘모으거나 수확하는’ 습관이 있었다”고 역설한다.⁶⁵ 다윗의 아내 중 외모가 언급된 세 명의 아내가 다윗의 이야기를 해석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그들은 아비가일(나발의 아내), 밧세바(우리아의 아

62 임효명은 레위인의 첩에 대한 강간과 살해 사건 이후에 등장하는 두 사건을 학자 대부분이 성폭력으로 다루지 않는다고 지적한다. 임효명, “성폭력 조력자들 연구”, 201. 더불어 유연희, “사사기 21장 모로 읽기: 야베스와 실로의 딸들을 기억하며”, 「성폭력, 성경, 한국교회」(권지성 편집),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2019), 90-116을 보라.

63 Phyllis A. Bird, *Missing Persons and Mistaken Identities: Women and Gender in Ancient Israel* (Minneapolis: Fortress Press, 1997), 91.

64 Philip F. Esler, *Sex, Wives, and Warriors: Reading Old Testament Narrative with Its Ancient Audience* (Eugene: Cascade Books, 2011), 122-3; 또한 출 5:1을 보라.

65 Frymer-Kensky, *Reading the Women of the Bible*, 153.

내), 그리고 아비삭(다윗의 첩이자 아도니아의 연인)이다.⁶⁶ 아델 벌린(Adele Berlin)은 다윗 내러티브 안의 사건들이 더욱 심각한 상황으로 발전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녀는 다윗의 “아내들에 대한 그의 반응과 관련하여 다윗의 삶에서 공적인 단계와 사적인 단계 사이에는 유사성이 있다”라고 설명하면서,⁶⁷ 그의 아내들에 대해 <표 4>와 같이 요약한다.

표 4. 다윗의 아내에 대한 비교⁶⁸

아내	사적인 모습	공적인 모습
아비가일	간절하지만 신사적인 반응	인기 있는 지도자로서의 자신감
밧세바	정욕, 자신의 것이 아닌 것을 움켜짐	소유를 늘리고, 자신의 왕국을 확장시키려는 욕망
아비삭	성(性)적 무능력	왕권에 대한 통제력을 상실

출발점은 사사기 19장에 나오는 레위인의 경우와 마찬가지로이다. 레위인이 베냐민 사람에게 당한 대우에 대해 복수하려 한 것처럼, 다윗도 나발이 자신과 자신을 따르는 이들을 부당하게 대우한 것에 대해 복수하고 싶어 한다. 이 사건에서 그는 나발의 아내를 자신의 아내로 취하게 된다. 이 사건에서 다윗은 아무도 죽이지 않지만, 다음 사건에서 밧세바를 얻기 위해 충성스러운 종을 죽인다. 더욱이 마지막 사건은 다윗이 죽었음에도 그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 진행된다. 그의 아들(솔로몬)이 아버지의 첩 아비삭 때문에 또 다른 아들(아도니아)을 죽이게 된다.

66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Daejun Jeong, “Thematic Dynamics of Characters’ Outward Appearance in the David Narrative” (PhD diss., University of St. Michael’s College, 2018), 98-149를 보라.

67 Adele Berlin, “Characterization in Biblical Narrative: David’s Wives”, *JSOT* 23 (1982), 79.

68 Berlin, “Characterization in Biblical Narrative”, 79.

신명기 역사 안에 위치한 다윗 내러티브에서 묘사되는 아름다운 다윗의 아내들과 관련된 여러 사건은 사사기 19-21장의 경우에서처럼 그의 욕망이 이야기가 진행될수록 더욱 극악하게 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점점 다윗은 야웨 하나님과의 소통보다는 자신과 자신의 아들의 정치적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사람과 소통한다. 발생한 사건에 대한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하는 인간적인 해결 방식은 처음 사건보다 다음 사건이 더 처참해질 수밖에 없음을 여실히 보여준다. 이처럼 신명기 역사는 야웨 하나님의 백성에게 그분의 개입이 필요함을, 즉 사람들 사이의 소통보다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소통이 중요함을 보여주기 위해 유사한 내러티브 패턴을 가지고 있다.⁶⁹

표 5. 다윗의 아름다운 아내들과 관련된 사건들 사이의 유사점

이름	아비가일	밧세바	아비삭
다윗의 아내가 된 방식	다윗이 자기 아내로 삼음		다윗의 신하들이 다윗의 첩으로 삼음
본 남편	나발	우리아	아도니아(그녀의 연인?)
본 남편과 다윗과의 관계	다윗의 적	다윗의 충신	다윗의 사랑하는 아들
본 남편을 살해한 자	다윗의 하나님, 야웨	다윗의 신하, 요압	다윗의 아들, 솔로몬
이것을 계획한 자	야웨(?)	다윗	다윗의 아내 밧세바를 포함한 그의 신하들

69 K. L. Noll, "Deuteronomistic History or Deuteronomic Debate? (A Thought Experiment)", *JOT* 31 (2007), 312.

그러므로 사사기에 언급된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다’라는 표현은 이웃 나라와 달리 단순히 이스라엘에 인간 왕이 없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눈에 보기에 좋은대로 행동하는 이스라엘을 비난함과 동시에, 그들과 야웨 하나님과의 소통이 부재함을 우회적으로 말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더불어 남성에게든 여성에게든 일어나지 말아야 할 이런 끔찍한 사건을 예방하는 방법은 야웨와의 의사소통이 필요함을 효과적으로 드러낸다.

5. 결론

클린턴 맥캔(J. Clinton McCann)은 “사사기에 나오는 폭력은 … 충격적이다. [그러나 그것은] 어떤 날의 저녁 뉴스만큼 충격적이지는 않다”라고 기술한다.⁷⁰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현시대의 참혹한 사건들 때문에 독자인 우리는 사사기 19-21장의 사건들을 접하면서 무감각해지거나 과거도 현재와 다르지 않았다는 평가만을 내리며 그 시대 여성들의 서글픈 처지에 대해서 동정하면서 이 본문에 대한 읽기를 마칠 수도 있다.

그러나 사사기 19-21장의 문학적 단위는 이 이야기가 그 시대 사람들뿐만 아니라, 우리와 같은 현시대의 독자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담고 기록되었음을 확연하게 드러낸다. 사사기 19-21장에 나오는 이 무시무시한 이야기는 ‘인클루지오’와 교차 구조(chiastic structure)와 같은 눈에 띄는 문학적 구조를 가지며, 전환점은 독자에게 화자의 의도를 확실히 하며 모든 사건을 하나로 연결해 보게 만든다. 또한 사사기 19장에 등장하는 이름 없는 인물들은 각각 야웨(그녀의 아버지), 악한 중

70 J. Clinton McCann, *Judges* (IBC: Louisville: John Knox Press, 2002), 138.

교 지도자(레위인), 불쌍한 이스라엘 백성(아버지의 딸이자 레위인의 아내 혹은 첩)을 상징한다. 더불어 사사기 19-21장에 나오는 세 부류의 여인들은 계단식 평행 구조를 만들며 독자에게 화자의 의도를 전달한다. 이 평행 구조는 사람들 사이에서 자신과 자신들의 관계에만 집중하여 그들이 “언약에 대한 신실함과 효과적인 의사소통을 특징으로 하는 야웨와의 의미 있는 관계를 버릴 때 발생하는 일”을 보여준다.⁷¹ 악한 지도자들은 계속해서 불쌍한 여인들을 양산해 내고 아버지와의 관계를 파괴하려고 한다.

무엇보다 올바른 왕(야웨)이 존재하고 그분의 개입이 있다면, 참혹한 상황은 물론 야웨와의 깨어진 관계가 그분에 의해 바르게 회복될 것이라는 희망을 이 이야기는 독자에게 전달한다. 그 왕은 그 시대에 그들과 함께하셨던 것처럼 오늘도 독자인 우리와 함께하실 것이기 때문이다.⁷² 화자는 이 이야기를 통하여 ‘장차 이스라엘에 왕이 계실 것이다. 모두 자기 왕이 보기에 옳은 대로 행할 것이다’라는 소망의 메시지를 독자에게 효과적으로 전하고 있다. 그 왕은 사울이나 다윗 같은 불완전하고 실수투성이인 인간 왕을 의미하지 않는다. 이스라엘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가장 적합한 왕이신 야웨 하나님을 의미한다.

참고문헌

- 박유미, “여성 등장인물을 중심으로 한 사사기 19-21장과 룯기 비교연구”, 『구약논집』 18집 (2020년 12월), 77-107.
- 빅터 해밀턴, 『역사서 개론』 (강성열 옮김), (과주: CH 북스, 2005). 원제 Hamilton, Victor P., *Handbook on the Historical Books* (Grand Rapids: Baker, 2001).

71 Lapsley, *Whispering the Word*, 64.

72 Waldemar Janzen, *Old Testament Ethics: A Paradigmatic Approach* (Louisville: Westminster John Knox Press, 1994), 38.

- 유연희, “사사기 21장 모로 읽기: 야베스와 실로의 딸들을 기억하며”, 「성폭력, 성경, 한국교회」(권지성 편집),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2019), 90-116.
- 이영미, “전쟁과 성폭력 피해여성들의 추방 경험과 해방을 위한 기억들: 일본군 ‘위안부’ 피해여성과 사사기 19-21장의 성폭력 피해여성을 사례로”, 「캐논앤컬처」 18호 (2015), 97-128.
- 임효명, “성폭력 조력자들 연구: 사사기 21장, 사무엘하 13장, 16장 20-23절을 중심으로”, 「구약논단」 83집 (2022년 3월), 188-230.
- Ackerman, Susan, *Warrior, Dancer, Seductress, Queen: Women in Judges and Biblical Israel* (Anchor Bible Reference Library; New York: Doubleday, 1998).
- Aschkenasy, Nehama, *Woman at the Window: Biblical Tales of Oppression and Escape* (Detroit: Wayne State University Press, 1998).
- Bach, Alice, “Rereading the Body Politic: Women and Violence in Judges 21”, Alice Bach(ed.), *Women in the Hebrew Bible* (New York: Routledge, 1999), 389-401.
- Bal, Mieke, *Death and Dissymmetry: The Politics of Coherence in the Book of Judges*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88).
- Bird, Phyllis A., *Missing Persons and Mistaken Identities: Women and Gender in Ancient Israel* (Minneapolis: Fortress Press, 1997).
- Bellis, Alice Ogden, *Helpmates, Harlots, and Heroes: Women's Stories in the Hebrew Bible*, 2nd ed. (Louisville: Westminster John Knox Press, 2007).
- Berlin, Adele, “Characterization in Biblical Narrative: David's Wives”, *Journal for the Study of the Old Testament* 23 (1982), 69-85.
- Boda Mark J./Mary L. Conway, *Judges* (Exegetical Commentary on the Old Testament 7; Grand Rapids: Zondervan, 2022).
- Boling, Robert G., *Judges* (Anchor Bible 6A; New York: Doubleday, 1975).
- Butler, Trent C., *Judges* (Word Biblical Commentary 8; Nashville: Thomas Nelson, 2009).
- Davidson, Richard M., *Flame of Yahweh: Sexuality in the Old Testament* (Peabody: Hendrickson, 2007).
- Dearman, J. Andrew, “The Family in the Old Testament”, *Interpretation* 52 (1998), 117-29.
- Dorsey, David A., *The Literary Structure of the Old Testament: A Commentary on Genesis – Malachi* (Grand Rapids: Baker, 1999).
- Engelken, K., “פְּלִנְיָהּ”, *TDOT* 11, 549-551.

- Eskenazi, Tamara C., "The Structure of Ezra-Nehemiah and the Integrity of the Book", *Journal of Biblical Literature* 107 (1988), 641-656.
- Esler, Philip F., *Sex, Wives, and Warriors: Reading Old Testament Narrative with Its Ancient Audience* (Eugene: Cascade Books, 2011).
- Exum, J. Cheryl, "Feminist Criticism: Whose Interests Are Being Served?", Gale A. Yee (ed.), *Judges and Method: New Approaches in Biblical Studies*, 2nd ed. (Minneapolis: Fortress Press, 2007), 45-89.
- Frymer-Kensky, Tikva, *Reading the Women of the Bible: A New Interpretation of Their Stories* (New York: Schocken Books, 2002).
- Hamilton, Victor P., "פְּלִיטָה", *NIDOTTE* 3, 618-619.
- Janzen, Waldemar, *Old Testament Ethics: A Paradigmatic Approach* (Louisville: Westminster John Knox Press, 1994).
- Jeong, Daejun, "Thematic Dynamics of Characters' Outward Appearance in the David Narrative", PhD diss., University of St. Michael's College, 2018.
- Krisel, William, "Was the Levite's Concubine Unfaithful or Angry?: A Proposed Solution to the Text Critical Problem in Judges 19:2", *Old Testament Essays* 33 (2020), 473-489.
- Lapsley, Jacqueline E., *Whispering the Word: Hearing Women's Stories in the Old Testament* (Louisville: Westminster John Knox Press, 2005).
- Mason, Rex, "The Use of Earlier Biblical Material in Zechariah 9-14: A Study in Inner Biblical Exegesis", Mark J. Boda/Michael H. Floyd (eds.), *Bringing Out the Treasure: Inner Biblical Allusion in Zechariah 9-14* (Journal for the Study of the Old Testament Supplement Series 370; Sheffield: Sheffield Academic Press, 2003), 1-208.
- McCann, J. Clinton, *Judges* (Interpretation: A Bible Commentary for Teaching and Preaching; Louisville: John Knox Press, 2002).
- Niditch, Susan, *Judges* (Old Testament Library; Louisville: Westminster John Knox Press, 2008).
- Noll, K. L., "Deuteronomistic History or Deuteronomic Debate? (A Thought Experiment)", *Journal for the Study of the Old Testament* 31 (2007), 311-345.
- Farker, Julie Faith, "Re-memembering the Dismembered: Piecing Together Meaning from Stories of Women and Body Parts in Ancient Near Eastern Literature", *Biblical Interpretation* 23 (2015), 174-190.
- Parunak, H. Van Dyke, "Oral Typesetting: Some Uses of Biblical Structure", *Biblica* 62

- (1981), 153-168.
- Rabin, Chaim, "The Origin of the Hebrew Word *pileges*", *Journal of Jewish Studies* 25 (1974), 353-364.
- Reis, Pamela Tamarkin, "The Levite's Concubine: New Light on a Dark Story", *Scandinavian Journal of the Old Testament* 20 (2006), 125-146.
- Schulz, Sarah, *Die Anhänge zum Richterbuch: Eine Kompositionsgeschichtliche Untersuchung von Ri 17-21* (BZAW 477; Berlin: De Gruyter, 2016).
- Smith, Michael John, "The Failure of the Family As a Theme in the Book of Judges", PhD diss., Dallas Theological Seminary, 2004.
- Spronk, Klaas, *Judges* (Historical Commentary on the Old Testament; Leuven: Peeters, 2019).
- Stone, Ken, "Judges 19-20: Concubine (Secondary Wife) of a Levite", Carol Meyers/Toni Craven/Ross S. Kraemer (eds.), *Women in Scripture: A Dictionary of Named and Unnamed Women in the Hebrew Bible, the Apocryphal/Deuterocanonical Books, and the New Testament* (Grand Rapids: Eerdmans, 2000), 248-250.
- Szpek, Heidi M., "The Levite's Concubine: The Story That Never Was", *Women in Judaism* 5 (2007), 1-10.
- Trible, Phyllis, *Texts of Terror: Literary-Feminist Readings of Biblical Narrative* (Philadelphia: Fortress Press, 1984).
- Webb, Barry G., *The Book of Judges* (New International Commentary on the Old Testament; Grand Rapids: Eerdmans, 2012).
- _____, *The Book of the Judges: An Integrated Reading* (Journal for the Study of the Old Testament Supplement Series 46; Sheffield: JSOT Press, 1987).
- Wong, Gregory T. K., *Compositional Strategy of the Book of Judges: An Inductive, Rhetorical Study* (Supplements to Vetus Testamentum 111; Leiden: Brill, 2006).
- Younger, K. Lawson Jr., *Judges and Ruth* (NIV Application Commentary. Grand Rapids: Zondervan, 2002).

검색어

사사기 19-21장, 성폭력, 문학적 구조, 고유명사 기피, 여성 등장인물

www.kci.go.kr

[ABSTRACT]

A Coherent Reading of the Violence Incidents in Judges 19-21

Dae-Jun Jeong
Kwangshin University

This paper offers a coherent reinterpretation about the incidents in Judges 19-21. Are these incidents simply good examples of misogynistic attitudes in the Hebrew Bible? Or does the narrator intend to reveal YHWH's will to His chosen people? In my opinion, the narrator shows that YHWH is the sole king for the Israelites with these contents: the incidents about the women who encounter a horrible end and the problems due to wrong decisions made by the people.

This paper is divided into three parts for supporting my opinion. Firstly, I will discuss the literary structure of this narrative. There are certain keys in the literary structure to indicate the narrator's intention. Secondly, I will explain the narrator's purpose for avoiding proper names in the incident. None of the characters in the incident have proper names, but are introduced according to their status, such as the Levite, the concubine, and the father-in-law. The avoidance of proper names functions as a literary device in the whole story. Thirdly, I will compare the female figures in the whole story: the concubine, the 400 young virgins of Jabesh-Gilead, and the daughters of Shiloh, as the narrator describes that the Israelites progressively made things more terrible. Even though the Israelites sought rational ways to solve their previous faults, these solutions

www.kci.go.kr

actually created more serious problems to those women. Through this, the narrator effectively presents that YHWH is the only king of Israel.

key words

Judges 19-21, sexual violence, literary structure, avoidance of proper names, women characters

투고일: 2023년 09월 29일

심사일: 2023년 10월 30일

게재 확정일: 2023년 11월 21일

www.kci.go.kr